◇…경희 발전 위한 94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 경희 50주년 21세기 향한 도약의 기틀마련

## 구성원 의견수렴·학교 현황 파악 주력

## 교육 경쟁력 확보위한 제도 개혁 추진

94년 초기는 교육개방과 대학평가인정제를 앞두고 대학마다 학교발전 계획안을 앞다투어 내놓던 시기였다. 정부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학만을 선별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자연 도태하리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은 물론이다. 우리학교는 이런 배경속에서 앞으로 99년 경희 50주년을 바라보며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94년도 우리학교의 사업들은 크게는 경희 50주년을 바라보며 작게는 내년에 있을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섯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개방화시대에 맞춘 대학의 세계화, 연구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의 선진화, 대학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한 경영의 효율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조직의 자율화, 민주적·합리적 사고함양을 위한 교육의 인간화, 사회봉사를 구체화한 사회기여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 경희발전 계획안의 문항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네가지의 기본방침을 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왔다. 그 첫째는 경희구성원의 화합을 이루는 일이다. 대학발전의 최대의 장애요인을 대학안에서의 집단이기주의, 편협성, 파벌 등 구성원들간의 질등으로 파악한 셈이다. 따라서 구성원의 역량의 결집과 협력을 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 전체교수연찬회, 제안21C-옴부즈맨 제도, 학생청원심의제도, 직원인사제계 연구위원회 등을 마련하였다. 둘째는 교육시장 개방 등 전례없는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일이다. 또한 나아가 이를 발전의 호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세째는 95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상위그룹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대학종합평가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정관념인 대학의 서열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상당부분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하여 제도와 관행을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올해의 행정사업과 재정이 거의 이를 목표로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바람직하는 아니는 실질적인 제도와 현상들이 많이 드러났으며 전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지 못한 이유로 일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네째는 교육의 질적 수준도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2학기에 접경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의 전면개편작업을 들 수 있다. 현재 학교측 전행사항을 보면 지난 3월 18일 교양과정연구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 지난 4년여 동안 논의되었던 결과를 토대로 개편시안을 마련했다. 현편 5개월동안 회의를 거쳐 연구위원회 개정안을 교양 8개영역 1백44개 과목으로 확정하였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교과목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타학교에 비해 교원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의존율은 훨씬 높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과과정개편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그 개편과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바꿀뿐 내용은 별 변화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외에도 D학점 재수강제, 계절학기 활성화 방안도 추진되었다. 한편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인용교수를 3년간 계약제로 임용하는 교수계약제도 채택되었다. 이때 재임용의 평가내용은 연구실적, 강의능력, 전공영역에서의 활동실적, 학생지도능력과 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등 이다.

또 95년 대학종합평가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며 입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특히 대학, 의료원, 재단의 회계를 완전 공개한 일 등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 2학기부터는 연구조교와 행정조교로 조교제도가 분리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도서관, 행정, 교육체계 전 분야에서도 전산교육시설이 확충될 계획이다. 취업지도위원회가 총장직속기구로 활성화되며 교직원의 해외여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여러 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개혁의지가 필요하며 한시적 변화가 아닌 진정한 경희발전의 모티브가 되어야 하겠다.

산을 혼자 오르기보다 함께 오르기는 훨씬 힘들다. 그러나 경희발전이 전 구성원의 뜻이라면 구성원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리한 비판은 절실하다.

또한 학교측도 앞에서 이끄는 식의 조급함을 탈피하여야 한다. 구성원과 사업을 공유하는 여유로 부작용과 비힘조를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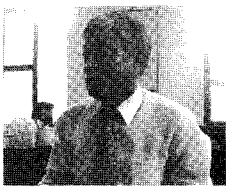
〈취재부〉

◇…94년도 업무추진 현황

| | 내 용 |
|---|---|
| 경희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현황파악을 위한 사업 | ·교무위원 및 행정간부직원 합동 연찬회<br>·행정직원 워크샵<br>·경희발전계획(안) 설명회 및 삼자협의체 구성에 관련 논의<br>·실험계 동문초청 간담회<br>·10회 졸업 동문초청 간담회<br>·언론계 동문 초청 간담회<br>·정, 관계 동문 초청 간담회 |
| 주요행사 | ·제8대 총장 이취임식<br>·개교45주년 행사<br>·생물학과 평가<br>·화학공학과 평가<br>·산학협력기술원 개원<br>·사법대학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 구성 |
| 새로운 제도 또는 신규사업 |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br>·특별면제시험 실시<br>·D학점 재수강제 실시<br>·"제안 21C"-Ombudsman제도<br>·학생청원심의제도<br>·1995학년도 대학종합평가 준비작업<br>·입학연구위원회 발족<br>·직원인사체계연구위원회 구성<br>·총학생회 국제학술대회 개최<br>·대학, 의료원, 재단의 회계 완전 공개<br>·전자제산소 조직개편<br>·기숙사 확충-KAIST기숙사 입차<br>·전산교육시설 확충 |
| 제도개선 | ·교직원 해외여행 절차 간소화<br>·계절학기 활성화<br>·학생증 개선-Credit Card화<br>·조교제도개선<br>·연구박사제 개선<br>·취업지도위원회 활성화 |
| 주요공사 현황 서울캠퍼스 | ·게시판 교체-밝은사회탑앞, 중앙도서관 앞<br>·체대앞 골프장과 테니스장 분리망 설치<br>·각 건물에 정수기 설치공사<br>·법대 도서실에 이중창 설치<br>·대운동장 배구장 및 농구장 교체<br>·생물학과 실험실 개수공사<br>·정경대 1층 연람실 개수공사<br>·도서관 앞 휴게실 조경공사<br>·도서관 열람실 바닥 카페트 설치<br>·도서관 전체 보수공사<br>·학생회관 비상계단 설치공사<br>·음대 리사이틀홀 개수공사<br>·한의대 내부 도장공사<br>·한의대 실험실, 강의실 개, 보수 공사<br>·의대 공동실험실 개수공사<br>·교환대 교체공사<br>·의대 계단 강의실 개수공사<br>·의대 화장실 개수공사<br>·체대 수영장의 전면적 개수<br>·크라운관의 전면적 개수공사 |
| 수원캠퍼스 | ·교직원 통학버스 교체-5대<br>·공과대학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교체<br>·공과대학 구내식당 주방 보수공사<br>·제1 종합처리장 공사<br>·전자계산소 UPS구입<br>·학생회관 동아리실 전화 설치<br>·외대앞 도로변 조경공사<br>·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br>·천문대 내부전시장 설치 공사<br>·공과대학 엑스벤슨죠인트 공사<br>·신설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br>·사회대 시청각실 보수공사 |
| 여름방학중 업무 | ·하기 직원 연수<br>·교수 연찬회, 전체교수회의<br>·복지회관 운영계획의 수립<br>·각종 개·보수공사 진행 |

◇…상반기 사업평가 실무진에게 듣는다

## -박 명 광 서울기획관리실장을 만나



서울캠퍼스 대학종합평가가 내년이다. 교육시장 개방도 눈앞이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마다 교육 경쟁에 들이는 공은 주시할만하다. 우리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올해 개교 45주년을 맞은 우리학교는 연초부터 분주했다. 이 분주함이 어떤 자체평가를 받고 있는지 박명광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박실장은 "개교이래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한 학기였습니다"라고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자신한다. 업무추진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우선 경희 전 구성원의 화합을 최우선적인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대학발전의 최대장애는 대학안의 구성원간의 갈등이라고 파악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또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대비하고 95년 대학종합평가에서의 상위그룹 인정등을 위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한다. 한편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경희발전의 토대를 위한 의견수렴과 현황을 파악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제도와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치자면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경희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기 위해 등문 간담회를 많이 개최했고 학생과 교수의 전반적인 학교에 대한 인식을 알기 위해 학생생활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소에 각각 설문을 의뢰해서 분석했습니다." 또 2학기부터 새로 임용되는 교수에 대해 3년간의 업적평가를 통해 재임용하는 교수계약제, 단대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 권한을 대폭 이행하는 내용으로 행정조직 관료화 개선, 총장 직속기구로 취업정보실장 임명, 조교제도 개선 등의 제도개혁에도 힘을 쏟았다고 설명하면서 실무부서의 현황까지 지적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예년에는 한 학기에 한개 정도의 제도가 개폐되곤 했는데 올해는 이미 18개 규정이 제정, 개정되었고 8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기획실 직원들이 슈퍼맨에 버금가지요"라며 웃는다.

한편 하반기 중심업무에 대해서는 "경희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희 전구성원의 공유를 위해 공청회나 설명회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경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과과정개편도 진행중이고 현재 본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재조정을 각 단대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간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도서관, 행정, 교육체계의 모든 부분에서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또 현재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을 표방하듯이 우리학교는 어떤 특성화를 꾀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연구와 강의가 조화를 이루는 대학'이라고 강조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에만 중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이미 엘리트 기능보다는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학문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인 면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해내는 일이 우리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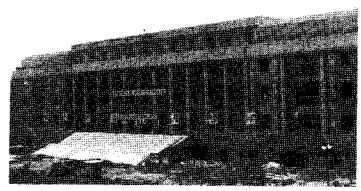
## "가장 많은 사업 추진한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종합평가 뿐만 아니라 대학발전을 위해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박실장은 "교수, 학생의 적극적인 협력입니다"라고 망설임없이 대답한다. "변화와 개혁의 느낌은 빨리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소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여러면에서 관심과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교수들이 합조만 해준다면 자신있습니다"라는 말에 더욱 밝은 경희의 내일을 보는 듯 했다.

〈채연〉

◇…수원중앙도서관 완공 임박

## 학생편의 제공위한 다양한 시설 갖춰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중앙도서관완공 마무리작업에 맞춰 오는 12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2학기부터 도서관이용법이 대폭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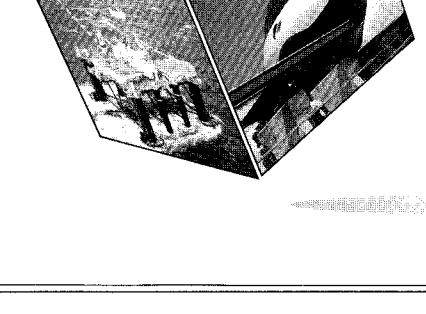
이번 학기부터 이용하게될 중앙도서관은 약8천평 규모로 하1층, 지상4층 모두 5층건물로 지하층을 살펴보면 3백10석 규모로 24시간 개방하는 개가열람실과 일반도서열람실이 있고,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연구하는데 있어 빠른 도서이용등의 편의를 제공할 전용개인열람실 8개와 16대의 도서검색단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마다 배치되며 학생들 취향에 맞는 음악감상과 어학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운드룸이 설치된다. 그리고 1층을 보면 7백20석의 일반연람실과 4대의 도서검색단말기가 또한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되고 신간 서적, 문구점등 전시장을 겸한 매장이 들어서게 되며 2층은 7백20석규모의 일반열람실로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3층에는 교내행정부서가 자리잡는다. 끝으로 4층은 문화박물관, 여기서는 세계적인 유산과 모조품들이 전시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1층에는 채광판계로 각 책상마다 스탠드가 설치된다고 한다.

또한 이번학기부터 학생증과 도서대출증이 바코드가 부착된 ID카드 한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외부의 제작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학교 자체적으로 제작되어 오는 10월초부터 사용될 이 학생증겸용 도서대출증은 신청순서대로 발급된다. 이 제출하면 되는데 기계시스템에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했을 경우라도 다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이 기계에 사진촬영기능이 있어 미리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에 사용되는 카드제작기는 일본에서 제작된 6천만원 상당의 고가품이다.

한편 도서관은 지난 8월22일 이전작업을 끝내고 31일까지는 짐정및 개관준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효율적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하층 내부설계변경과 외벽대리석공사등에 관한 건설회사와의 재계약문제로 잠시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전기간중에도 단대 자료열람실을 포함한 모든 열람실을 개방하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대출업무 또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비계되는 공대, 외대자료열람실공간사용은 소속 단대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하며 도서관장 허종(외대 영문과)교수는 "일부 학생들의 미남도서 때문에 도서전산화 마무리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학생들의 빠른 도서반납을 거듭 당부했다.

〈고혁민 記者〉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INFRA 구축 —

現代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옷, 멋진 신발도 필요하지만
곧고 튼튼하게 잘 닦인 길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공, 기업의 생명, 국가경제의 흥망도 결국은
그 '기초'의 굳셈에 달려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항만, 정보통신사업 등
現代는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이
국가경제 전체를 밑받침하는 SOC(사회간접자본)구축에
모든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국가기간산업에 적극투자하여 제2, 제3의
또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現代의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SOC라인 현대그룹 주요 추진 사업 (총투자규모 : 16조원)
●울산공단사업 ●덕지원 복합점 및 지하관 개발사업
●LNG 임해형 발전소사업 ●인천항 고철하역 전용부두 건설사업 등
●난지도개발, 영종도 신공항사업 ●고속철도차량사업

現代